



잡초 무성한 전시관.

■ 북암리 고분전시관 위치도



나주시가 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건립한 북암리 고분전시관.

착공 5년 넘도록... 문 못 여는 나주 북암리 고분전시관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고분전시관'이 사업시행에 들어간 지 5년이 넘도록 개관을 못 하고 있다. 당초 현실감 있게 지하 8m에 설치할 계획이던 고분전시관은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으로 바뀌었으나 공사비 절감은 미미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옥상 전망대는 마을 당산나무에 가려 고분군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내부전시 설치업체 반발로 올해 개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백년된 두 그루의 마을 당산나무가 시야를 가려 북암리 고분전시관 옥상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고분군을 볼 수 없다.



◇사업비 112억원 들여 고분전시관 건립=나주시는 국내 유일의 복합 묘제인 북암리 고분군(국가사적 제 404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북암리 고분전시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총사업비 112억원(국비 51억800만원, 도비 12억400만원, 시비 48억 1600만원)을 투입해 다시면 북암리 일원 부지 4만2211㎡에 전시관과 사무동 각 1동을 2011년 8월 착수해 2013년 2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건축공사는 동광건설이 수주했다.

하지만 고분전시관은 당초 지하 1층·지상 1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 2층(연면적 4030㎡)으로 바뀌어 건립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하에 고분전시관을 설치할 경우 인근 영산강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하고 습기가 우려돼 설계변경을 한 후 지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시관이 위치한 랑동마을 주민들은 "영산강이 전시관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져서 흐르고 있어 지상 설계변경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만약 설계변경이 영산강 때문이라면 고분 속에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반문했다. 또 주민들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 8m 공사가

설계변경 통해 지상 2층 건립 불구 공사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 당산나무에 가려 고분군 안보이는 전망대...부지선정 잘못 지적 내부전시 설치업체 추가비용 요구 작업 중단...연말 개관도 불투명

빠지고 지상에 건축했는데도 건축 공사비는 76억원에서 겨우 9억원 줄어든 67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취재확인 결과 설계변경 후 전시관 건축공사비 증감은 23억원에서 16억원으로 7억원이 줄어든 반면 도급 비용은 52억원에서 5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개관 불투명=더욱이 심각한 것은 탐방객들이 전시관 옥상에 설치된 고분전망대에서 고분군을 전혀 볼 수 없다. 고분군과 전시관의 정 중앙에 수백 년 된 마을 당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시관은 고분 옆에 세워야 방문자들이

고분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도 고분이 보이지도 않는 한적한 곳에 짓는다는 것은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이다"며 "또 역사교육장으로 단체 청소년들이 자주 찾을 것인데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건너야 고분에 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분전시관은 북암리 고분군으로부터 400여m 떨어진 도로를 건너 랑동마을 한쪽에 위치해 있다. 고분전시관은 지난해 10월 겨우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12월쯤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전시 제작설치업체의 작업 중단으로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 나주 북암리 고분전시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비 13억3000만원에 A업체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내용이 달라지고 지난 2009년 공모계약 당시보다 건축공사기 5년 이상 지연돼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시에 3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에 대한 추가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준공과 함께 위탁운영업체를 공모해 9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증액안 서류도 아직 끝나지 않아 연말까지 개관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지난 1990년 발굴된 북암리 고분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0여기의 다양한 묘들이 한 봉분에 조성돼 있는 아파트형 고분으로, 발굴 도중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고분군은 본래 7기 정도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3기가 없어지고 지금은 4기가 남아 있다. 고분군 중 제일 큰 3호봉은 도굴을 면해 금동신발과 은제장식, 환두대두 등의 유물이 나왔다. 시는 북암리 고분전시관이 개관하면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 역사교육장과 관광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클·사진 손영철기자 ycsn@

본격 여름 휴가철 안전운전 하세요

나주경찰 교통질서 캠페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나주경찰서(서장 김봉은)는 지난 4일 금천면 금천IC에서 휴가철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나주경찰은 휴가를 떠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홍보 리플릿과 생수, 부채, 전화사기예방 물티슈를 나눠주며 휴가철 안전 운전을 유도했다. 김봉은 서장은 "도내 피서지를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하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수량 부족에 임시휴장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지난 3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갔다. 7월 24일 개장했던 금성산 물놀이장은 올해도 가뭄단위 피서객들에게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지난해 강우량 누계가 전년 326mm에서 156mm로 52%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사방댐을 이용한 계곡물만을 활용하다 보니 이번 갈수기에는 부득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연중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1일 700여명, 연평균 1만40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에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8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 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30,000원
기 념 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